

광주경찰 음주운전 단속 요일·밤낮 없다

최근 사망사고 3건 잇따라 발생 시간·장소 수시 변경 불시단속 25일부터 처벌강화 홍보·계도

광주지방경찰청이 밤낮·요일 구분없이 상시 음주단속에 돌입한다. 광주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음주운전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 7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용아로에서는 만취한 A(혈중 알코올 농도 0.186%)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보도

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3일에는 북구 풍향동 필문대로에서 음주운전자 C(0.111%)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D씨를 치어 사망케 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에도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설 정도로 술을 마신 E(0.122%)씨가 광산구 운남동 하남대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F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광주경찰은 전년대비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절반 이상 감소한 반면 음주 사망사고 점유율은 오히려 9.5% 증가한 데 주목하고,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 광주지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명(6월 8일 기준)으로 전년동기

(33명) 대비 51.5%나 줄었으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6개월도 안돼 전년과 같은 3명을 기록 중이다. 경찰은 특히 6월 들어 일주일만에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 자칫 이런 추세라면 음주사고 사망 사건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광주경찰은 우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시음주단속을 통해 잘못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또 오는 25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음

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08%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상향됐다.

장승명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 밤낮, 평일·휴일 구분없이 시간과 장소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음주 단속에 나서겠다”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거나 과음을 했을 경우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9일 오후 광주 동구 두암동의 한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대낮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특혜채용·부정청탁 등 사학비리 신고하세요”

권익위·교육부 신고센터 설치

횡령, 특혜채용, 입학·성적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이 끝나도 센터 운영은 계속된다. 센터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각각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이 사실 확인을 한 뒤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 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교육부, 조선대 강동완 총장 해임 취소 결정

조선대 법인 이사회의 강동완 총장에 대한 직무해제와 해임에 대해 교육부가 각각 무효와 취소 결정을 내렸다.

9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 이사회의 강 총장에 대한 2차 직무해제(3월1일)는 무효이고, 총장직 해임(3월28일)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직위를 해제하거나 해임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인 이사회는 직무해제와 해임은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

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지난 2월과 3월 등 두 차례의 직무해제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2016년 9월 취임한 강 총장은 임기 만료(2020년 8월 말)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불명예 퇴진한 뒤, 자신을 대학 운영에서 배제한 이사회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이번 소청심사위 결정에 앞서 지난 2월 대학 이사회의 강 총장 1차 직무해제와 관련, 교육부는 직무해제 취소 결정을 내린 반면 법원은 대학 이사회의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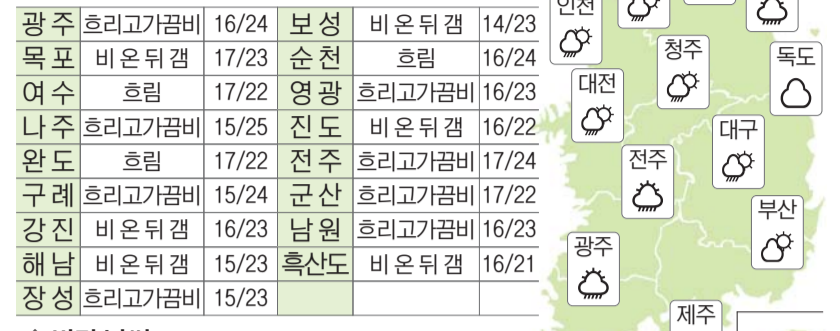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46 달뜨기 12:16 달지기 00:49

우산 챙기세요

하고 오후까지 비 내리는 곳 있겠다.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대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 생활지수

- 주의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좋음
-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2:54
여수	08:37	02:17
	20:54	16:57

◇ 주간 날씨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6/27	17/29	18/30	18/29	19/29	19/29	19/29

돌풍·번개 치고 오후까지 5~40mm 비

10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뒤에는 예년과 비슷한 평년기온(최저기온: 16~19도, 최고기온: 24~28도)을 당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10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새벽부터 비가 오다 밤에는 그치겠으며, 11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9일 예보했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6도·전남 15~17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5도·전남 23~25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광주·전남 예상강수량은 5~

40mm 내외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6도·전남 14~17도로 평년(광주 17.6도·전남 15.9~18.0도)과 비슷하거나 1~2도 낮고, 낮 최고기온은 광주 26도·전남 23~27도로 평년(광주 27.5도, 전남 24.3~26.3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남부 해상에는 10일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특별 단속

경찰이 메신저 피싱·몸캠피싱 등 민생 침해형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746건에서 지난해 9601건으로 3년 새 12배 넘게 급증했다. 피해액도 2016년 34억원에서 지난해 216억3000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능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J1 4point
- J2 5point
- J3 6point
- J5 8point
- J6 10point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